



COVID-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제학부, 그 중심에 우석경제관

지난 3년 경제학부의 모든 활동은 팬데믹이라는 낯설은 환경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수업은 비대면으로, 동아리 활동과 새 내기의 삶은 없었고, 교수님과의 만남은 온라인으로 국한되었다.

다행히 코로나 여건이 호전된 지난 학기를 지나며 경제학부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고, 그 가운데엔 경제학부의 새로운 터전인 우석경제관이 있다.

| 경우의 밤 |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경우의 밤이 22년 11월 22일 우석경제관에서 개최되었다. 교수님들과 많은 학부생들이 참석하여 대면으로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Happy Hour |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의 격의 없는 만남인 'Happy Hour'가 우석 경제관 5층 라운지에서 열렸다. 대학원생들과 교수님들은 이번 교류를 통해 석박통합과정 제도, 교수님들의 연구 분야 등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눠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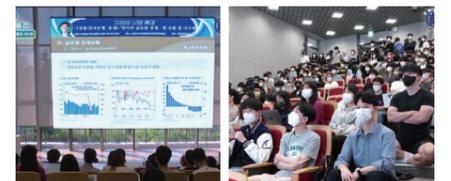
| 우석경제관 OPEN TALK 행사 |

우석 경제관 신축을 기념하여 오픈톡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학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많은 경험을 터득한 선배들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마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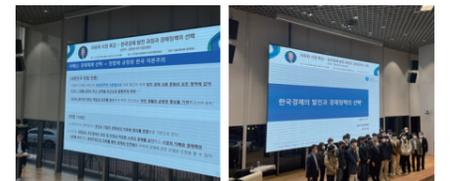
| 자유 시장 경제 특강 - 이창용 총재 특강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자유 시장 경제 특강이 우석경제관에서 열렸다. 현 중앙은행 총재의 강의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경제 흐름에 대해 생생하고 귀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



| 자유 시장 경제 특강 - 윤종원 IBK 은행장 특강 |

윤종원 IBK 은행장의 자유 시장 경제 특강이 우석 경제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는 기업 은행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 IMF Recruiting |

우석 경제관에서는 학술 세미나와 외부 강연 외에도 국제기구에서 경제학부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채용 설명회도 개최되었다.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을 채용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IMF에서 진행하고 있는 Economist Program에 대한 설명회도 같이 진행되었다.



주요 소식_교수 수상 및 동정

전영섭 교수, 2022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교육상(연구부문) 수상



전영섭 교수가 2022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연구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학술연구상은 탁월한 연구업적으로 학문 발전에 기여하고,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높인 우수 교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안동현 교수, 2022년 학술연구상(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



안동현 교수가 2022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학술연구상(교육부문)은 탁월한 교육업적으로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높인 우수 교원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근 교수, 제 41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



한국경제신문사는 이근 석좌교수를 ‘제 41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다산경제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근 석좌교수가 후발국이 어떤 경로로 선진국을 추격·추월할 수 있는지 집중 연구해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 분야에서 경제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근 석좌교수는 이번 다산경제학상 수상을 계기로 추격의 경제학을 완성하고 더 큰 업적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윤참나 교수, 제 11회 다산 젊은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



한국경제신문사는 윤참나 교수를 만 45세 이하의 역량 있는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11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윤참나 교수는 경제 이론 모형을 실증 분석에 적용해 경제 현상의 근간에 있는 메커니즘을 계량적으로 밝혀내고, 새로운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근관 교수, ‘김준보 메달’ 수상



류근관 교수가 ‘김준보 메달’을 수상하였다. 한국 통계학회는 학회 창립을 주도하고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김준보 선생을 기념하여 ‘김준보 메달’을 수여하기로 하였으며 제 1회 수상자로 류근관 교수(전 통계청장)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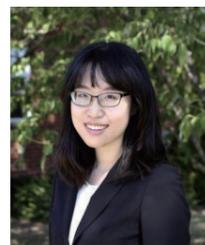
신임교수 부임

윤참나 교수, 경제학부 부임



윤참나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하였다. 윤참나 교수는 공공경제학 및 노동경제학 전공으로 2013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은희 교수, 경제학부 부임



이은희 교수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한다. 이은희 교수는 국제무역과 노동경제학 전공으로 2016년에 예일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수신간



국가통계의 새로운 길

류근관 지음
통계청 / 2022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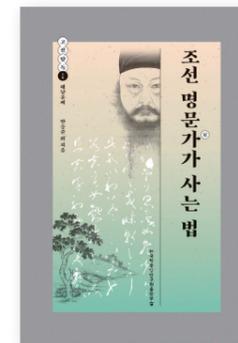
이 책은 류근관 교수가 통계 청장 재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통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 통계 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통계(인구, 사회, 경제 등)의 현황과 관련 사회 현상들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븐웨이브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 뉴노멀 트렌드를 이끌 7가지 거대한 물결

홍석철 외 6명 지음
21세기북스 / 2022년 9월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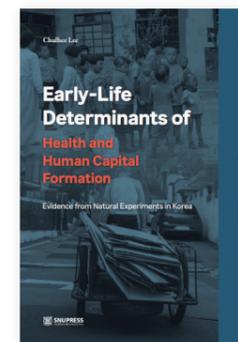
이 책은 우리 사회가 감염병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동안 질병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며 ‘팬데믹 경제학자’로 주목받은 홍석철 교수를 필두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석학 7인이 모여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가 미칠 장기적 영향을 논의한 합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전망하고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이다.



조선 명문가가 사는 법

조영준 외 지음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2022년 12월 출간

AKS 고전탐독 제16권으로 출간된 『조선 명문가가 사는 법』은 해남윤씨 집안의 고문서를 활용하여 미시사 연구를 수행한 결과물이다. 조영준 교수는 「초록 비 내리는 집의 비자나무숲 활용」라는 챕터를 저술하였는데, 해남윤씨 집안에서 조성하여 관리한 비자림(樺子林)의 경영과 비자나무 열매의 수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사적 의의를 도출하였다.



Early-Life Determinants of Health and Human Capital Formation

이철희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23년 1월 출간

이 책은 생애초기의 경험이 성인기의 건강 및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해 저자가 해방 이후 한국이 경험했던 몇 가지 실험적인 사례에 기초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한국의 자연실험적인 사례를 다룬 이 책은 생애초기 조건이 건강과 인적자본 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기존의 연구가 집중되었던 서구와는 제도적, 문화적으로 상이하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연구는 생애초기 조건의 장기적 영향이 제도적, 문화적 여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영섭 교수님 퇴임 기고문



전영섭 교수

정년을 하면서

제가 서울대학교랑 인연을 맺은 것은 1976년 3월 눈이 조금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입학식을 마치고 나서 관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4년간의 학부생활과 2년 6개월간의 대학원 생활을 뒤로 하고 1982년 7월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관악을 잠시 떠났지만 8년 후 1990년 8월에 돌아오면서 관악에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4년, 관악에서 32년 6개월, 합쳐서 36년 6개월간의 교수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니 누구나 마찬가지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저는 참으로 행복한 교수생활을 한 경제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주변에 좋은 선생님이 계셨고, 또한 직장을 잡은 후에는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학생들과 공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연구했기 때문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논문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공부를 계속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어렵겠지만 본인이 생각해서 평생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 Vanderbilt 대학에서 정년을 하신 John Weymark 교수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1950년생인 Weymark 교수님이 2022년 8월에 자발적인 정년을 하신다고 해서 나도 2023년 2월에 강제정년이라고 했더니 정년하고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 오히려 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Weymark 교수님은 정년을 하고도 논문을 계속 쓸 것이며 학회에 가서 후학들을 도와줄 생각이라고 저보고도 학회에서 계속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고도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공부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70세를 넘어서도 계속 논문을 쓰고 후학을 돕겠다는 Weymark 교수님의 생각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약속을 한만큼 나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는 다짐을 오늘도 해 보지만 과연 언제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나도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인지요?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0)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2)
-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1986)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94-2022)

홍기현 교수님 퇴임 기고문



홍기현 교수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다

경제학부 교수로 근무한지 34년이 넘었습니다. 학사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까지 지낸 것을 포함하면 관악캠퍼스에서 생활한지 40년이 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경제성장은 빠르게 진행되어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되었고, 몇 차례의 정치적 격변을 통해서 민주화도 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관악캠퍼스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것이 엇그제 같은 생각이 듭니다. 1977년 2학년 때 경제학과에 진입한 이후, 관악캠퍼스 7동 2층에 있던 학과 사무실에 들락거리던 때가 기억납니다. 추운 겨울날 학과 사무실에 있는 석유난로 위에 끓이던 보리차를 학과 사무실 직원분이 나누어 주면, 하숙집에서 싸준 식은 도시락을 잘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별다른 경력도 없이 모교의 교수가 되었으므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경제학설사라는 상대적으로 희소한 분야를 공부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위를 마치고 바로 본교 교수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지원 당시 다른 관련 분야의 지원자와 경합을 하게 되었는데 한 차례 결정이 보류되었고 또 다시 지원해서 임용될 때 까지 1년 정도 비자발적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슨의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듯이 실업자가 겪는 고통의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너무 안 지나가기 때문에 공연히 먼 곳에 있는 도서관을 가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40년간의 학교 교수 생활, 특히 마지막 5년은 금방 지나간 것 같은데, 백수 시절 하루를 보내기가 힘들게 기억된 것은 우리 머리 속에서 시간의 길이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겠지요. 인지과학에서는 점심 식사 메뉴가 무엇인지와 같은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들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잘 기억되지 않는 반면, 인생에서 영향이 큰 특징적인 몇 사건들은 생생히 기억된다고 합니다. 특히 특징적인 부정적인 요소가 감정적인 영역에 큰 영향을 주었을 때는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어 기억되기도 합니다. 백수 생활 동안에도 반복적인 일들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불편함이 동반된 하루 생활이었기 때문에 특히 길었던 것은 그러한 감정이 오래 남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년을 맞아 저의 경험을 쓴 것은 단순히 “인생은 짧고 하루는 길다”는 말이 인지과학적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뿐만은 아닙니다. 돌이켜 볼 때, 하루하루 생활이 쌓여서 인생을 이루게 되므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평소의 노력과 습관이 사람의 특성을 형성하고, 그 사이 쌓인 역량이 좀 더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잘 지내고, 한 고비 한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금방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 경제학부에서의 생활이나 현재 있는 위치에서의 일들이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또 다시 찾아오는 하루를 보람 있게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0)
-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1983)
-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87)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89-2022)

신임교수 인사말 윤참나 교수



윤참나 교수

안녕하세요, 지난 가을학기 경제학부에 부교수로 부임한 윤참나입니다. 저는 2001년 학부에 입학하여 졸업 후 경제학 석사과정에서 3학기 수학하였으며 2008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2013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서울대로 옮기기 전까지 미국 뉴욕시립대(CUNY), 성균관대학교, KAIST 경영대학에서 9년 동안 연구와 강의를 하였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2005년 한창 경기가 좋았던 금융분야 취업을 목표로 하고있던 저는 금융공학에 필요한 주식·채권·파생상품, 계량경제학, 선형대수학

등을 수강하면서 제 적성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유학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게 학문의 길로 들어선 후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하여 황윤재·이인호교수님의 지도하에 계량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을 골고루 배워 준비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박사과정에 진학해서는 응용미시경제학 분야를 연구하였습니다. Kenneth Wolpin 교수님의 지도아래 구조적 계량분석(structural estimation) 방법론을 이용하여 도시 및 노동 경제학 분야를 연구하였는데, 동 방법론은 경제 이론 모형을 실증분석에 직접 이용해 경제 현상의 근간에 있는 매커니즘을 계량적으로 밝혀내고 새로운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어 이론, 실증, 정책 분석 모두에 관심이 있는 저에게 매력적인 방법론으로 다가왔습니다.

구조적 계량분석은 경제 이론을 실증분석에 직접 이용한다는 점에서 실증분석에서 널리 이용되는 축약형(reduced form) 방법과 대비됩니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에서는 인적자원의 축적을 위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자녀의 학교 등교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축약형 실증분석에서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실험(field experiment) 혹은 준실험적(quasi-experimental) 방법을 이용하여 인과관계를 계량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이 자녀의 학교 등교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인 매커니즘을 밝히고 더 나아가 최적의 보조금 정책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모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냈을 때 얻는 효용 및 미래 임금상승분과 학교에 가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얻는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비교하는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등교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조적 계량분석에서는 이러한 모형의 효용함수 및 임금결정식 있는 파라미터들을 직접 추정합니다. 추정된 구조 모형을 이용해 이론적 매커니즘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등교율의 남녀 차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차이가 부모의 효용의 차이에서 기인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이익(임금)의 차이에서 오는지 그 상대적 중요성의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시나리오 하에서 모형의 예측을 시뮬레이션하는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을 통해 여러 다른 보조금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최적의 보조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축약형 분석과 구조적 분석이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한 자녀 등교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여러 저개발국가에서 현장실험(field experiment)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실험자

료가 있으면 구조모형의 유효성(validity)을 보다 명쾌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대조군의 자료를 이용해 구조모형을 추정한 후 정책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여 실험군과 비교해보면 모형의 예측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조적 계량분석은 현장실험의 한계점을 보완해 줍니다. 경제적, 법적, 윤리적 이유로 현장실험에서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보조금 정책을 모두 실험해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1-2년 정도의 단기적인 효과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된 구조모형이 있으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다양한 보조금 정책의 장·단기 효과를 비교해서 최적의 보조금 형태를 찾아 정책 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실증연구자들이 축약형 혹은 구조적 분석 중 한 방법론에 특화하였던 반면 요즘 연구자들은 잘 정립된 두 방법론을 모두 배워 논문에 적용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을 통해 더 많은 독자의 관심을 끌어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탄탄한 축약형 분석의 토대위에 구조적 계량분석이 가능하다고 믿고있으며 최근 연구에는 두 방법론을 균형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중심지인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이 지난 50년간 쇠락한 원인을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가 지역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구조적 방법론을 통해 계량화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펜실베이니아대학의 Holger Sieg 교수님과 오랜 기간동안 동 방법론을 이용한 공동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가 정책 및 유권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흥미롭게 연구해 왔습니다. 최고의 석학들이 최신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미국경제를 연구하다 보니 가장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 연구자로서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보람도 컸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분석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연구를 지속하면서도 한국경제의 주요이슈를 구조적 계량분석 방법 등을 이용해 심도있게 분석한 국문 논문을 써서 정책 논의에 보탬이 되는 한편 국내 학술지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깊게 연구하고있으며, 방법론적으로도 머신러닝 등 새로운 방법론을 연구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연구만큼 교육활동도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는 불확실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지만 강의에 대한 피드백은 즉각적으로 받기 때문에 저는 강의준비에도 열성을 다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번 봄학기에 개설하는 ‘응용미시경제학연구’ 과목에서는 축약형 실증분석과 구조적 분석을 균형있게 다루고자 하며, 가을학기에는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경제학과 부동산과 관련된 과목도 개설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과목으로 학부생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큰 기대가 됩니다.

모교로 돌아와 존경하는 선배교수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서울대 경제학부는 더 좋은 연구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석학들이 최고의 연구 및 교육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한번 더 도약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교육·봉사 모든 면에서 학부의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2007)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2013)
- 미국 뉴욕시립대 조교수 (2013-2016)
- 성균관 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2017-2018)
- KAIST 경영대학 부교수 (2018-2022)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2022-현재)

학부생 기고글 “갈지자(之) 대학생활을 돌아보며”



유재서 (학부 17학번)

새내기 생활, 학교 수업, 동아리, 군대, 코로나, 학회, 인턴. 돌이켜보면 제 대학생활은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 후회하면서 짧게나마 방황도 하였지만, 지나고나니 그때의 제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4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고,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배움과 수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4년간의 대학생활을 통해 배우고 얻은 것들 3가지, 즉 사람, 저의 취향 파악, 그리고 저의 가치관 확립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확은 [사람]인데요, 평생 가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3년 연속으로 찍은 같은 과, 같은 반 친구들의 졸업사진은 저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대소사를 함께하는, 가족보다 더 자주 보면서도 진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얻었습니다. 또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들과 학교생활을 보내면서, 지적인 자극도 많이 받아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확은 [저의 취향 파악]인데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자기이해가 점차 깊어졌습니다. 저는 시간을 제 통제하에 두는 걸 좋아하는데, 이걸 가능케한 전기 스쿠터는 제게 있어 올해 최고의 소비였습니다. 통학하면서 만원 버스와 지하철을 탈 필요가 없어져 스트레스가 사라졌고,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낙성대 거리는 너무나도 쾌적했습니다. 심지어 스쿠터를 타려고 학교에 오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라이딩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안정지향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의외로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거 역시 좋아한다고 느꼈습니다. 장사를 경험해보고 싶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 친환경 치실을 떼다팔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수확은 [저의 가치관 확립]인데요, 주도적이며 호기심 있고, 또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의 어구들이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이 어구는 지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금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도적으로 사람을 이끌면서도 조금 곁돌고 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턴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일도 해보고 싶어서 경제학부 후배들에게 다양한 진로를 소개하고자 과사무실을 대표하여 경제학부 동문 인터뷰를 최초로 기획 및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Alumni Interview-Department of Economics at SNU). 인턴 세네번을 하면서 현업에 계신 분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도움이 된 게 없다는 생각이 발단이었습니다. 커리어와 관련된 기회를 저학년 때부터 많이 접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구체화하여 실천까지 나아갔다는 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비록 저는 미래에 학교를 떠나 없겠지만, 모조록 똑똑한 후배들이 해당 활동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관된 목표를 갖고 대학생활을 보내지는 않아서 아쉬긴 하지만, 지나보니 고유한 추억이 많이 깃든 4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단 한 번뿐인 대학생활을 통해 많은 걸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

글 : 이윤경 (서포터즈 회장, 경제학부 22학번)

1. 동아리 소개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2012년에 창설된 경제학부 산하 동아리로 경제 A, B, C 반과 자유전공학부 경제학 전공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입니다. 경포터즈는 문화 기획국, 소통홍보국, 교육진로국, 학생복지국으로 구성되어 경제학부의 다양한 행사 및 강연을 열고, 경제학부생들의 복지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격주로 1회 정기 총회를 가지며 경포터즈 전체 업무 배분 및 국별 업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부원들과 교류합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경포터즈의 지도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김진우 교수님이십니다. 여러 학부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주관하는 동아리인만큼, 지도교수님 뿐만 아니라 경제학부의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경포터즈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우의 밤, 스승의 날 행사 등) 직접 참여도 하십니다.

3. 동아리 활동 소개

(1) 상과대학 체육대회 및 토론대회 설계전 개최

매 1학기마다 경제학부와 경영대학이 연합하여 상과대학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설계전 체육대회에서는 단체종목, 구기종목, e스포츠 등의 종목을 진행하며 반 내 단합과 반별 교류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체(體)'를 담당했다면, 토론대회는 '지(智)'를 담당하게 됩니다. 경영대와 경제학부로 구성된 팀끼리 모여 우리 사회의 트렌디한 경영/경제 시사 문제를 주제로 해당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새로운 학술 교류의 장을 열어나갑니다.



(2) 경우의 밤 주최

매 2학기마다 열리는 '경제학부 학우의 밤'을 의미하는 행사로, 경제학부 교수님들과 만찬을 즐기며 강의실 밖의 교수님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문 셰프가 직접 조리한 호화로운 뷔페와 각 교수님마다의 특색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학부 시절 등 색다른 이야기 주제로 교수님과의 다채로운 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2년 2학기에는 교수님을 포함하여 약 100분의 경제학부 구성원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3) 우석경제관 Open Talk, 자유와 시장 특강 홍보

2021년 준공된 우석경제관 (223동)에서 1학기에는 연사와 청중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OPEN TALK 강연이, 2학기에는 '자유와 시장' 강연이 열리는데, 이 강연들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4) 시험기간 건강 특방 및 간식 사업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기간에 각 전공 과목별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학부생들이 전공 과목들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Q&A를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험기간 중 점심시간에 햄버거나 핫도그와 같이 간단하지만 든든한 간식을 제공하여 시험기간을 응원하는 간식사업도 진행합니다.



(5) Alumni Interview

2022년 2학기부터 민간, 공직, 학계에 진출해 계신 경제학부 동문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TF팀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용을 경제학부 홈페이지와 경포터즈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합니다(<https://econ.snu.ac.kr/people/alumni-interview>). 자세한 내용은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경제학부 과잠 사업

매 2학기마다 경제학부 A, B, C반 및 자유전공학부 경제학 전공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단체 과잠을 제작합니다. 돛바와 폴리스, 항공점퍼 등을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아 단체 주문을 하게 되고, 관악의 추운 겨울을 단체 과잠으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7) 학부 행사를 주관하는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경제학부 A, B, C반 학생들과 자유전공학부 경제학 전공 학생들이 함께 모여 교류할 수 있습니다.

BK21 - Four 사업단 소식

본 사업단은 2020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지난 7년간 BK21플러스 사업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 및 국제 평판도에서 국내 1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은 “한국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고자 한다. 우리 사업단은 국내 1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기 위해 (1) 교수진의 연구 역량 질적 향상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의 교육 체제 개편 (3) 양방향 국제화 실현 (4) 한국경제 당면 과제 해결 기여라는 4가지 실천 전략을 토대로 해외 연구중심대학과 국제기구로 진출 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2022년도 하반기 학술활동

BK21사업단은 2022년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14회
- BK21/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 11회
- Applied Micro 세미나 13회
- K21 해외석학 초청 특강 1회
- BK21 Brown Bag Lunch 세미나 7회
 - 소모임 세미나 1회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MICRO)

Doruk Ceteman (City University of London)
Dynamic Predation and Entry Deterrence

김덕규 (성균관대학교)
Penalty Lottery

이기영 (Postech)
A (Paradoxical) Solution for Greenwashing Problems

Can Urgun (Princeton)
Costly Verification and Money Burning

김진우 (서울대학교)
Predictive Enforcement

Yinghua He (Rice University)
Leveraging Uncertainties to Infer Preferences:
Robust Analysis of School Choice

Acelya Altuntas (Deakin University)
Some Characterizations of Generalized Top Trading Cycles

Arjada Bardhi (Duke University)
Local Evidence and Diversity in Minipublics

지창구 (연세대학교)
A Dual Approach to Agency Problems

최경진 (University of Calgary)
Blockchain: Basic Ideas and Economics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METRICS)

Enrique Sentana (Cemfi)
Specification Tests for Non-Gaussian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

황정빈 (University of Connecticut)
Fixed-Cluster Inference with Unbalanced Cluster Sizes

윤장수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A Generalized Poisson-Pseudo Maximum Likelihood Estimator

Tatsushi Oka (AI Lab CyberAgent)
Distribution Vector Autoregression: Eliciting Macro and Financial Dependence

BK21 공동주관 학술행사

금융경제연구원 공동주관 세미나

조수진 (연세대학교)
What Can We Learn about Emissions-Reducing Technological Change from the Joint Dynamics of CO2 Emissions and GDP?

Ziho Park (National Taiwan University)
Shock Propagation within Multisector Firms

천동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Tax-benefit Link of Public Pensions

김남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남북한 인구구조 변화와 통일의 거시적 효과

Munseob Lee (UC San Diego)
The Life Cycle of Products: Evidence and Implications

서재용 (서울대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Control and Trend in Earnings Inequality

Robert Kirkby (Victoria U of Wellington)
Discretizing Earnings Dynamics: A Life-Cycle Non-Stationary AR(1) Process with Gaussian-Mixture Shocks

김형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Rent Inflation After Tightening Monetary Policy Shocks

Christian Matthes (Indiana University)
Inflation Measured Every Day Keeps

Adverse Responses Away: Temporal Aggregation an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김소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추진 방향

박혜진 (Université de Montréal)
How Task-Biased is Capital-Embodied Innovation?

BK21 Applied Micro 세미나

Yujung Hwang (Johns Hopkins)
Structural Analysis of Xenophobia (with Huan Deng)

Joseph Han (KDI)
Early Speci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and Labor Market Outcomes

David Weil (Brown)
Land Quality

Joana Naritomi (LSE)
Cash Transfers and Formal Labor Markets: Evidence from Brazil

Daniel Trefler (University of Toronto)
Trade and Innovation

Daniel Trefler (University of Toronto)
Looking Backward, Innovating Forward: A Theory of Competitive Cascades

Youjin Hahn (연세대학교)
Can STEM Learning Opportunities Reshape Gender Attitudes for Girls?: Field Evidence from Tanzania (with So Yoon Ahn and Semee Yoon)

Seunghoon Lee (MIT)
Small Corrective Tax, Household Production,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Evidence from a Food Waste Tax

David Neumark (UCI)
Help Really Wanted? The Impact of Age Stereotypes in Job Ads on Applications from Older Workers

David Neumark (UCI)
What Can We Conclude From the Evidence on the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Recent Progress

Boyoung Seo (Indiana University)
Racial Difference in Retail Prices Paid

Ajin Lee (MSU)
How does Medicaid Managed Care Affect Provider Behavior? New Evidence from Spillovers on Private Health Care

Steven Lehrer (Queen's University)
Estimating Context-Independent Treatment Effects in Education Experiments

BK21 해외석학 초청 특강

Charles Engel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Liquidity Yields and Exchange Rates

BK21 Brown Bag Lunch 세미나

최준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Revisiting OLS Regression

박예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Crop Insurance and Crop Choice

신현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과정)
The Impact of Selection into the Labor Force on the Gender Wage Inequality in South Korea

주찬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The Effect of Fathering Firstborn Daughter

노신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Cyclicalities of Welfare Programs

황영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Divorce Trends in Korea and its Decomposition

황인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Negative Spillover Effect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 Evidence from COVID-19 Pandemic

소모임 세미나

기후환경 경제학 소모임 세미나 5회

22년 2학기

장학금

장학금 수혜 현황

2022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403명, 대학원생 79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260명, 대학원생 54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상대항상 재단을 통해 학부생 27명이 향상장학금을 받았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6회 후기 학위수여

경제학부는 박사 4명, 석사 12명, 학사 59명(최우등 14명, 우등 26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은 체육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 학위수여식을 치른 졸업생까지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유튜브로도 생중계 되었다.

2022학년도 통계 계절학기 개설

2022년도 통계 계절학기가 12월 22일부터 2023년 1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통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계량경제학', '경제수학', '경제통계학', '경제사'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동문 수상

천동민 박사과정생, 2022 KAEA(Korea-America Economic Association) Job Market Conference 최우수 논문 발표자로 선정



천동민 박사과정생이 2022 KAEA (Korea-America Economic Association) Job Market Conference에서 최우수 논문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잡 마켓 컨퍼런스는 미국 우수 대학과 기관에서 연구하는 재미 한국계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한미경제학회(KAEA)가 한인 박사급 인재들의 미국 취업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최종 6명이 'Best Job Market Paper Award(최우수 논문 발표자)'로 선정되었으며 천동민 박사과정생은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Tax-benefit Link of Public Pension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저소득 가구에 노동시장참여를 조건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생애소득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분석한 최초의 논문으로 의미가 큰 연구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6일(현지 시간)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천동민 박사과정생이 2022 KAEA (Korea-America Economic Association) Job Market Conference에서 최우수 논문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이번 잡 마켓 컨퍼런스는 미국 우수 대학과 기관에서 연구하는 재미 한국계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한미경제학회(KAEA)가 한인 박사급 인재들의 미국 취업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최종 6명이 'Best Job Market Paper Award(최우수 논문 발표자)'로 선정되었으며 천동민 박사과정생은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Tax-benefit Link of Public Pensions"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저소득 가구에 노동시장참여를 조건으로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가 생애소득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국민연금제도와 함께 분석한 최초의 논문으로 의미가 큰 연구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6일(현지 시간)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도영웅 석박통합과정생, 제20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 대상 수상



도영웅 석박통합과정생이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하는 제20회 한국경제신문 경제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거시/금융, 재정/복지, 산업/통상 등 3개의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총 49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으며 고교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이 참여하였다. 수준 높은 논문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통화정책 금리 인상에 대한 가계부문 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제목의 연구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도영웅 학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나오는 소득·지출·자산·부채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의 연체율과 채무불이행 확률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분석하였고 그 의미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2022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2022년도 2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근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y
이철인	Studies in Labor Economics (Special Issues in Labor Economics)
Dmitry Shapiro	Topics in Microeconomics(Economics of Strategy), Advanced Economic Theory(Economics of Information)
Gueron Yves	The Digital Economy, Microeconomics
김석호	Introduction to Economics, Principles of Economics2

국제 학술 세미나 및 해외 석학 초청 특강 개최



한국경제혁신센터 해외석학 초청 특강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223동)에서 '한국경제혁신센터 해외석학 초청 특강'이 열렸다. 초청 강사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Chales Engel 교수로 'Liquidity Yields and Exchange Rates'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